

터키 탄광 폭발...200여명 사망·수백명 매몰

이스탄불 남쪽250km 소마탄광
787명 지하 2km서 작업 중 '평'



터키 서부 마니사주 소마의 탄광에서 13일(현지시간) 발생한 폭발사고의 사망자가 수가 205명으로 늘었다. 아직 수백명이 탄광 안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 시간이 흐를수록 희생자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는 263명이 숨진 1992년 흑해 연안 탄광사고 이래 터키에서 일어난 최악의 탄광사고로 기록될 전망이다.

A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터키 재난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3시20분께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도시 소마의 탄광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불길에 치솟고 내부 일부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14일 새벽까지 205명이 사망하고, 80명 이상이 다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타네르 아들드스 에너지 장관은 "지금까지 205명이 사망하고 80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명은 위중하다"며 "일산화탄



13일 터키 서부 이스탄불 남쪽 250km 떨어진, 마니사의 탄광 폭발 현장에서 사고 수시간후 한 광부가 구조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소 등 유독가스 중독이 주요 사망원인"이라고 밝혔다. 또 "폭발 당시 탄광 안에 787명이 작업 중이어서 희생자 수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구조대원 등 400명이 구조작업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구조된 인원은 363명 기량이나 아직 상당수가 탄광 안에 갇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폭발은 교대 시간에 발생, 탄광 안에 있던 인원 규모가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현지 지방정부와 언론 등은 사고 초기 탄광 안에 200~300명의 광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으나 작업 인원이 그 두 배 이상이라는 정부 발표에 따라

희생자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당국은 폭발이 탄광 입구로부터 2km 지점에서 발생했고, 광부들은 지하 2km, 탄광 입구에서는 4km 지점에 갇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폭발은 지하 2km 지점에 있는 전력공급 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구조당국은 갇힌 광부들을 위해 공기를 투입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며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총리는 희생자 가족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

고 밝혔다. 에르도안 총리는 알바니아 순방 일정을 취소하고 14일 소마를 방문한다.

당국은 이 탄광이 2개월 전 안전진단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한 것으로 판정받았다며 정확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 광부는 AFP에 "이 탄광에는 안전장치가 없었다. 노동조합은 회사 말만 들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터키에서는 1992년 흑해 연안의 중굴당에서 발생한 사고로 광부 263명이 숨지는 등 탄광 안전사고가 종종 일어났다고 AFP 등은 전했다. /연합뉴스

'후쿠시마 방사능 코피' 인기작가 만화에 일본이 발칵

원전 다녀온 인물 코피 흘러
정부·주민 "근거없다" 항의

후쿠시마 원전 주변을 다녀온 인물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실은 인기 만화 '맛의 달인'이 방사선의 위험도와 표현의 자유 등에 관한 논쟁을 가열시키고 있다.

일본 주간지 '빅콤믹스피리츠'가 지난 달 28일 자에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마을에 다녀온 주인공 일행이 코피를 흘리는 장면을 게재했고 이어 이달 12일 원전 인근 후타바(雙葉) 마을의 전 촌장이 코피가 방사선 피폭 때문이라고 말하는 대목을 실으면서 공방이 거세졌다.

후쿠시마 현 측은 사토 유헤이(佐藤雄平) 지사가 "현민이나 후쿠시마 현을 응원하는 이들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깊은 상처를 주는 것"이라고 하는 등 만화가 후쿠시마현이나 현지 생산물에 대한 근거없는 불안을 확산시킨다고 반발했다.

도 지진 잔해물을 수습한 오사카(大阪)시 소카장 인근 주민이 코피를 흘리고 목과 눈의 통증을 호소했다는 표현이 포함된 것에 관해 오사카시와 오사카현은 출판사인 소카쿠칸에 항의문을 보냈다.

반면 후쿠시마 농산물에 대한 근거없는 편견에 대해 설명하는 전문가로 맛의 달인에 등장하는 실존 인물 고야마 료타(小山良太) 후쿠시마대학 준교수(농업경제학)는 "후쿠시마가 재산을 위해 나서서 것을 포함해 취재는 긍정적이었다. 원전 사고가 잊혀 가는 중에 현상을 알리고 음식의 안전에 관한 논의를 정리하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고 평가했다.

만화의 편집부는 논란을 낳은 표현이 "논의를 한 번 더 깊게 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작가가 채용한 것"이라며 코피와 방사선 사이의 인과 관계를 단정 지을 의도는 없었다는 뜻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작가인 가리야 데쓰(雁屋哲·73) 씨는 앞서 블로그에 소신을 밝혔고 물러서지 않고 있다.

그는 "후쿠시마는 안전, 후쿠시마는 괜찮다, 후쿠시마의 부흥이 추진되고 있다"고 쓰면 다 기뻐할지 모르겠다"며 논란이 된 후의 부제목이 '후쿠시마의 진실'인 만큼 진실 외에는 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가리야씨는 논란이 이 정도로 커질 줄은 몰랐지만, 후쿠시마를 다른 내용으로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내용에 관한 책임을 자신에게 있으니 편집부가 아닌 자신에게 직접 보내라고 덧붙였다.

피폭으로 코피가 날 수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교토통신에 따르면 엔도 게이코(藤野啓吾) 교토의료과학대학장은 방사선의 영향에 의해 혈액 중의 혈소판이 감소해 출혈이 멎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지만 적어도 1천mSv(밀리시버트) 이상의 피폭이 없으면 출혈을 동반하는 증상이 나오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사히(朝日)신문은 14일 사실에서 만화의 묘사 방법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저널리즘 피폭에 대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많고 사고 후 건강상의 피해에 관한 주장도 많이 있는 등 관심의 배경에는 원전 정책에 대한 분노가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1983년부터 연재된 맛의 달인은 일본 사회의 식도락 문화를 강화한 요소로도 평가받으며 한국에서도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 /연합뉴스

육회가 영어로 'six times'? ...웃지 못할 외국어 메뉴판

국립국어원, 문체부 등과 3개 국어 한식 표준번역안 확정

음식점에 가면 영어를 비롯한 외국어로 메뉴를 표기한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문제는 영터리 번역이 많다는 점이다. 어느 음식점 메뉴판에는 '육회'가 'six times' (여섯 번)로 옮겨져 있다고 한다.

국립국어원은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농림수산업부가 맺은 업무협정에 따라 영어·중국어·일본어 번역 전문가와 각 언어 원어민의 의견을 수렴, 주요 한식 200가지의 3개국어 표준 번역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상차림, 밥, 죽, 면, 국·탕, 찌개, 전골, 찜, 조림, 볶음, 구이, 전·튀김, 회, 김치, 장·장아찌, 젓갈, 기타 반찬, 떡, 한과, 음청류 등 20개 범주로 나눠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음식을 대부분 망라했다.

표준안은 명칭을 최대한 해당 언어로 옮기되, 관용적으로 발음 자체를 외국어 표기해 온 음식은 원음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을 표준으로 삼았다. 특히 일본어로는 '잡채' '삼겹살' 등 한국어 명칭을 알리고

자 하는 음식은 원음 그대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가장 흔한 한국 음식인 김밥은 로마자 표기와 영어 번역 모두 'Gimbap'으로 하고 중국어로는 뜻을 옮긴 '紫菜卷飯(츠차이주안판), 일본어로는 원음을 따른 'キンパフ(긴파푸)로 표기했다.

외국인에게 인기가 높은 비빔밥 역시 로마자 표기와 영어 번역을 'Bibimbap', 일본어 번역도 'ビビンバ(비빈바)로 하고 중국어 번역만 '비빔 밥'이라는 뜻의 '拌飯(반판)으로 했다.

육회는 영어로는 '생쇠고기'라는 뜻의 'Beef Tartare' 중국어는 '生拌牛肉(성반

니우러우), 일본어는 'ユッケ(유키)로 옮겼다.

다만 한국 대표 음식인 김치의 중국명은 애초 검토한 '泡菜(파오자이)가 절임음식을 뜻해 발효음식인 김치와는 다르고, 농림부에서 상표명으로 개발한 '후춧(신치)은 아직 중국 내 파급력이 검증되지 않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국어원은 국내외의 한식당 관련 자료를 보유한 한식재단 측에 확정안을 전달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중국 장신 여군들 중국의 여군 의장대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解放軍報)는 14일 중국을 방문한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이 전날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 앞에서 여군 의장대를 사열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일제히 소개했다. 전체 여성 의장대원은 30명. 이들은 모두 키가 173cm 이상이며 90%가 대졸 출신이라고 중국언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두암신협

50억 한시 특판

정기예탁금 1년 **3.1%**

알찬예탁금 최고 **2.9%**

수시입출금통장

두암신협

본점: 263-0136 (말바우 사거리)
울곡지점: 264-1232 (두암중학교 입구)
첨단지점: 572-9511 (호반아파트 정문 맞은편)

더 높은 이율과 비과세 혜택을 동시에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정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결혼정보

중매 잘한다~ 성사 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다년재직 (광주서초동원학교출연, 전주동원학교출연) **서울대학교동문학회 결혼정보서비스사업**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 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재혼

남	재혼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남	재혼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전주 아미호텔) (063) **275-7766**

임페리얼 클럽